



강북구의회
Gyeo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5년 8월 31일
(월요일)

강북신문 5면

◆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-유인에 의원

“번동 셋강어린이공원 정비 나서주길”

유인에 의원, “암벽놀이 운동기구와 연필모양 울타리 사고 많다”

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(번1,2동 수유2,3동)은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번동 셋강어린이공원의 신속한 정비를 촉구했다.

유 의원이 정비를 요구한 번동 셋강어린이공원은 번1동 472-39번지에 1975년 최초 조성되어 2009년 최종 정비한 곳으로 각종 놀이시설과 휴게시설,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어 이웃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이 많은 장소다.

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



유인에 의원

다.

유 의원은 “어린이공원을 아름답게 조

하기 위해 설치된 암벽놀이 운동기구와 연필모양의 울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다 낙상사고 및 미끄럼 사고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

성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노후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교체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”라며 “안전관리 기준에 통과한 시설물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완 및 정비가 시급하다”고 주장했다.

이날 유 의원은 강북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“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 및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서울포스트 5면

◆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-유인에 의원

“번동 셋강어린이공원 정비 나서주길”

유인에 의원, “암벽놀이 운동기구와 연필모양 울타리 사고 많다”



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(번1,2동 수유2,3동)은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번동 셋강어린이공원의 신속한 정비를 촉구했다.

유 의원이 정비를 요구한 번동 셋강어린이공원은 번1동 472-39번지에 1975년 최초 조성되어 2009년 최종 정비한 곳으로 각종 놀이시설과 휴게시설,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어 이웃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이 많은 장소다.

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설치된 암벽놀이 운동기구와 연필모양의 울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다 낙상사고 및 미끄럼 사고 등으로 다

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.

유 의원은 “어린이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노후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교체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”라며 “안전관리 기준에 통과한 시설물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완 및 정비가 시급하다”고 주장했다.

이날 유 의원은 강북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“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 및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